

보도시점 : 2025. 4. 30.(수) 06:00 이후(4. 30.(수) 석간) / 배포 : 2025. 4. 29.(화)

## 「항공안전 혁신 방안」 발표

- 공항시설 안전성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
- 항공사 정비역량 강화,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
- ‘선(先) 항공안전, 후(後) 항공운항’ 체계 정립, 항공안전 중심 성장 기반 마련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4월 30일 우리나라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「항공안전 혁신 방안」을 발표합니다.

- 지난해 12·29 여객기 참사 이후, 정부는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 시설, 항공사 정비·운항 체계, 정부의 항공안전감독 등 항공 전 분야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.
- 정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항공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(위원장 채연석, 이하 위원회)를 운영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.
- 위원회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분야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, 공개 토론회(3.21)와 현장 종사자 면담·설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가 발굴한 과제 등을 종합하여 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.

### <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주요 활동>

- ① (회의체 운영) 2개 분과별(항공운항 안전분과 / 공항시설 개선분과) 분과회의 각 8회,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전체회의 4회 개최
- ② (항공안전 대토론회) 3.21일 개최, 산·학·연 전문가, 항공종사자 등 약 2백명 참여, ‘운항 안전’과 ‘공항 안전’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 진행
- ③ (현장 의견수렴) 현장종사자 의견 청취(2.26, 3.6, 3.27), 국적 항공사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(2.28~3.14), 공항 현장점검(3.5 인천공항) 등

□ 「항공안전 혁신 방안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

○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해 공항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.

- 먼저,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(7개소)의 방위각시설은 지면 형태,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\*하겠습니다.

\* 무안·광주·여수·포항경주·김해·사천 등 6개 공항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, 제주공항은 H형 철골구조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분석(~5월) 결과에 따라 추진

- 전국 공항이 240m 이상의 중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, 불가피하게 중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(EMAS)가 설치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.

- 안개·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·착륙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지방·도서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, 첨단 보안검색 장비를 도입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안티 드론 시스템을 확충\*하여 신종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

\* 김포공항 레이더 3기·제주공항 레이더 1기 추가(~26), 인천공항에 무력화 장비 추가(~27), 울산·여수·양양·무안공항에 시스템 신규 도입(~26)

○ 조류 충돌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('25.下)하고, '26년부터 인천·김포·제주공항 등 타 공항으로 순차 도입할 계획입니다.

- 또한,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·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우선 투입('25.上)하고, 중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조류분석·탐지 기능 및 조명·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하여 전국 공항에 배치\*하겠습니다.

\* (추진 일정) 개발('25~'26) → 무안공항 등 실증('26~'27) → 전국공항 확산('28~)

-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\*도 추진하겠습니다.

\* 최소 전담인력 증원(2명 → 4명), 운항횟수가 적어도 조류 충돌률이 높은 경우 인력 추가 확보, 조류충돌예방위원회(공항별) 논의를 통해 필요시 증원

-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('25.6)와 음파 발생기('25.8)를 추가 도입하고, 레이저진,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지자체·지방항공청·공항공사와 '상생 협의체'를 구성하고, 공항 반경 13km를 「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」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, 신규 조류 유인 가능시설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공항주변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

\* 무안공항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'조류충돌예방 통합감시센터' 시범 설치·운영

- 또한, 관계부처(군, 환경부) 및 지자체와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검토하는 등 조류충돌 예방활동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조류 충돌 예방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.

○ '안전 관리', '사고 예방' 중심으로 공항 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- 공항의 건설·운영 기준을 정비하고, 공항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 계획을 수립('25.12)하겠습니다. 아울러,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\*하고 공항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.

\* 연구용역 착수('25.上) → 평가방안 마련('25.下) → 「공항시설법」 개정 및 평가시행('26)

- 또한, 공항 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\*을 주기적으로 재검사(5년 주기)하고, 공항 시설의 유지관리에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.

\* 공항운영자는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어 국토부장관의 증명을 받아야 함

- 한편, 무안공항은 종단안전구역과 방위각 시설 개선('25.8월말), 조류탐지 레이더 시범설치('25.下) 등 안전성 강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, 운항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운영 재개 시기를 확정하겠습니다.

## ② 항공 사고 '예방형' 안전 관리 체계 구축

○ 항공사의 정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정비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.

-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하여 비행 전·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\* 정비 인력을 확충\*\*하겠습니다.

\* 우선 B737·A320F 기종에 대해 7~28% 연장('25.10), 타 기종에 대해서도 新기준 적용('25.12)

\*\* 최소 정비인력 산출기준상 경력기준 상향, 정기편 주5회 이상 해외공항 정비체계 구축 의무화

- 아울러, 국내 정비환경 개선을 위해 중·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 확대\* 등 MRO 산업 육성 정책과 정비사 양성·자격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\* 첨단복합항공단지(인천) 토지임대료 감면 확대, 해외 정비물량 유턴 시 운수권 인센티브 등

○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.

-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\*하여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항공사별 투자 노력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,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.

\* (현재) 항공사별 단순 투자금액만 공시하여 운항 규모가 큰 대형 항공사에 유리 (개선) 운항거리 등 운항 규모를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표준화하여 공시하고, '사전 정비비'와 '신규 항공기 도입'을 투자금액 공시 항목에 추가 반영

-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경년 항공기는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, 취약분야 정비항목 신설과 정비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○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.

- 국적사 모의 비행훈련장치 도입 권고, AR/VR 훈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, 조종사 훈련기관의 시설·장비(모의비행훈련장치 등) 구비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조종사 탑승인원 수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대(심야·주간), 이·착륙 횟수 등도 고려하여 조종사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등 조종사 피로도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.

○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·관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정부가 항공사의 인력·장비·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 제도를 강화하여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(예시: 20·40·80 등) 늘어날 때마다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,

-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, 항공기 결함·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·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.

- 이와 함께, **항공안전 감독관**(現 30명)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, 감독관 대상 **교육·평가**를 강화하여 정부의 **안전감독 역량**을 제고하는 한편, 관제량 및 관제업무 복잡성·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**관제역량**을 점진적으로 **확충**하겠습니다.

○ **공역체계를 개선**하고 **디지털 기반 항공안전 관리체계**를 구축하겠습니다.

- **항로-접근관제구역\*** 간 **중첩**을 조정하여 항공기 간 **근접 위험**을 해소하고, 공항 주변 **장애물**에 대한 **관리**를 강화하는 등 **공역 안전관리 체계**를 개선하겠습니다.

\* 접근관제구역: 공항에서 이륙하여 항로에 진입하거나, 항로에서 하강하여 공항으로 착륙하는 항공기를 관제하는 구역(관제 흐름 : 공항관제 ↔ **접근관제** ↔ 항로관제)

- 또한, 인공지능(AI),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기술 등 **첨단기술**을 조종·관제·공항·항로 등 **항공안전 분야**에 **도입\***하여 위험을 사전에 **예측**할 수 있는 **모니터링 체계**를 구축하겠습니다.

\* 공항·항로별 'K-항공안전 위험지도' 개발('25), 「항공안전 AI 로드맵」 수립('26.上)

### ③ **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**

○ **국적 항공사의 안전경영 환경**을 조성하겠습니다.

-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**안전투자 능력**(자본금\*)과 **인력·장비 확보 여부**를 면밀 검토하고,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**기존 항공사**는 면허 발급 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**심사**할 예정입니다.

\* (현재 기준) 국제여객은 150억원, 국내여객과 국제화물은 50억원 ⇒ 상향 추진('25.下)

- 추가로, 항공사 대상 '**항공안전 성과지표\***'를 신설하여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**집중 점검**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하겠습니다.

\* (예시) 연간 활주로·유도로 이탈, 항공기 간 접촉, 화재, 비행 중 엔진정지, 회항 건수 등

- 운항 관리제도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.
-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고,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사업계획 허가 시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를 현재보다 강화\*하겠습니다.
- \* (예시) 정기사업계획에 향후 운항규모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도 포함토록 하여 검토

#### ④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

- 항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, 성숙한 항공안전 문화 조성에 힘쓰며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.
-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등에서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\*한 만큼 다양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.
- \*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항공운항 안전분과는 ICAO 권고 및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항공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항공안전 전담조직 설립을 권고
- 아울러, 항공 종사자 등이 사고·준사고·안전장애 등 현장의 안전 이슈를 정부에 알리는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‘안전보고 문화’의 확산을 위해 노력\*하겠습니다.
- \* 안전보고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, 익명성 보장과 면책 등 보고자 보호 조치 등 추진
- 또한, 항공안전 정책제안 센터를 신설하여 누구나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국민 항공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“「항공안전 혁신 방안」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하여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”고 하면서,

○ “또한, ‘항공안전 혁신 방안’의 이행 뿐만 아니라 공항·항공사 특별안전 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고,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”고 하였습니다.

※ 별첨 : 항공안전 혁신 방안

담당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영혜 (044-201-4204)
		담당자	서기관 신익승 (044-201-4181) 서기관 이양구 (044-201-4189)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	책임자	과 장 김기훈 (044-201-4307)
		담당자	사무관 권영민 (044-201-4253)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 차상헌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 홍예표 (044-201-4211)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	책임자	과 장 박준상 (044-201-4219)
		담당자	사무관 최연준 (044-201-4223)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곽영필 (044-201-4244)
		담당자	사무관 조종관 (044-201-4255)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	책임자	과 장 강정현 (044-201-4259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수 (044-201-4271)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	책임자	과 장 박준수 (044-201-4294)
		담당자	서기관 하후호 (044-201-4303)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	책임자	과 장 정선우 (044-201-4356)
		담당자	사무관 박상현 (044-201-4350)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	책임자	과 장 박문수 (044-201-4328)
		담당자	사무관 양익준 (044-201-4333)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	책임자	과 장 박상민 (044-201-4347)
		담당자	사무관 공두영 (044-201-4344)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	책임자	과 장 안세희 (044-201-4232)
		담당자	사무관 이혜진 (044-201-4237)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	책임자	팀 장 이호준 (044-201-4137)
		담당자	사무관 소지섭 (044-201-4138)